

「搜查權 調整」 문제 언제 해결될 것인가?

김 연 수 (前 총경, 搜友會 총무)

얼마전에 서울외곽에 사는 처제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간에 일을 마치고 홀로 집에 오는 길에 느닷없이 노상강도를 만나 돈을 안 내놓으면 죽인다고 목을 죄고 팔이 부러져라 뒤로 잡아 비트는 바람에 약간의 상처를 입고 목숨만 살려 달라고 애걸하며 현금을 빼앗겼지만 뒤 늦게 퇴근하던 동료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 도망가던 강도는 잡았지만 그 후에 난감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강도범이 아주 착실한 서울 시내 모 대학교 우주항공학과 대학원생인데 벌을 안받게 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나이는 50대 들어섰지만 아직 애띠고 40대도 채 안돼 보이는 일장 몸집이 밤에 나 다니니까 그렇지 다친데가 없다고 내색을 하지 말고 피해금품도 회수되었으니 웅서해 달라고 애원해 보라고 했더니 언니네 생각이나 본인의 생각이 똑 같다며 좋아했다.

이 분야에서 꼬박 35년간 종사하다가 퇴직 후 시골 조그마한 대학에서 수년째 “방범론”과 “민간경비론” 강의를 계속하는 나로서는 누구 하나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사회는 아니지만 범죄현장 경험과 아직까지도 형사정책이론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범죄예방론의 세계추세와 우리 나라 현실을 보면서 “남의 나라 이론이나 정책은 이리이러한 것이 있다더라” 라고 전달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뻔히 보이는 가면을 벗고 과감히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특정계층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담을 계속 더 높이 쌓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 범인 처리에 대한 개연성과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희망 사회와 그 좌표를 나름대로 탄식과 함께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犯法者 處理 시나리오

이 사건을 담당 한 경찰서에서는 즉시 주거지 주민을 상대로 평소 학생의 소행을 알아보고 초·중고, 대학에 까지 학적부등 확인해 보았으나 약간 내성적이기는 해도 내내 모범우등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날 도서관에서 밥 먹는 것조차 잊고 책을 보다가 밤 늦게 전철표 한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저녁 좀 사 달라고 쫓아갔으나 아직 젊고 가냘프게 보여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도 마귀에 홀린 것 같다는 것이 본인의 후회였다.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치상죄에 해당되는 이 범죄행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므로 의당 경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하고 검찰도 본인이 범행시인하고 증인과 증거물 등이 확실하고 현행범임으로 법원도 실질심사 제도를 활용하였지만 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순리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입장에서 보면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 지금까지 고생 고생하면서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전 인생을 건 노력이란 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처절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구민리 같은 내 자식이 강도를 하다가 붙잡혔다는데 누굴 원망할 수도 없고 잘못했으니 본인의 벌을 달게 받고 평생을 전과자 낙인이 찍힌 채 살게 내버려 둘 부모는 이 세상 천지에 더 더욱 없을 것이다. 당장 길거리로 나 앉는 한이 있더라도 변호사를 찾아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 밖에 없으니 죽어가는 내 자식쯤 살려 달라고 매달릴

것이다. 전세금을 빼 달러가는 가련한 어머니 상이 떠올랐다.

21世紀 狀況의 犯罪豫防理論

18세기 범죄 고전학파는 형벌을 자유의사를 가진 인간의 반도덕적 행위 결과에 대한 응보라 하고 형벌의 목적은 위하를 통한 범죄억제라고 주장했고,

19세기 실증주의 범죄학자들은 자유의사를 부정하고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내·외재적 범인성 요인에 의해 범죄를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행위자를 위주로 처벌대신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치료하고 재사회화 교육(갱생)을 통해 범인성 요인을 교정하여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20년대 미국 시카고 사회학자들은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특정지역에 특정범죄가 빈발하는 현상을 보고 종전의 위하에 의한 범죄억제나 치료 갱생의 방법에 의한 범죄예방 효과에 의문을 던지고 특정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현상과 범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접근하게 되었다. 범죄를 생태학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 구조나 사회화 과정 또는 갈등에서 범죄 원인을 찾아 사회발전을 통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병리현상을 제거하여야만 범죄를 감소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말 1980년대 이후 범죄는 점점 재범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흉포화, 조직화, 전문화, 직업화, 스피드화하고 대담해지고 잔인해 가기만 했다. 이에 범죄사회학자들이 종전의 범죄원인에 대한 견해를 재검토하고 공리적 인간을 전제로 생활양식이론 또는 일상활동이론, 피해자학 등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인간은 누구든지 상황에 따라 범죄대상이 되고 범죄피해인 있으면 범행을 할 수 있다는 상황범죄예방이론을 내 놓았다.

이들은 사회발전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 전 기능과 상호 연관이 있고 물질, 재정적 한계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과 범죄인의 생리적 특성의 치료나 교화로는 범죄를 통제할 수 없다고 보고 범죄라는 것은 일단 발생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의 어려움, 검거된 범인을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범죄기회를 제거하여야 한다며 자유형도 구금에 의한 무력화 수단으로 보고 최근에 와서는 구금에 의하지 않는 무력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상황이론에서는 범죄예방이 형사정책의 핵심이고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합리적 인간이 선택한 범죄행위를 물리적으로 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고전주의 이론이라고 한다.

起訴獨占主義와 Diversion計劃

외국의 경우 기소 독점주의가 인정되는 나라도 있지만 사인 소추주의도 있고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 소년법에 대하여는 90년대부터 경찰에서 조사하여 필요적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범죄예방단체가 전개하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하여 더 나쁜 범죄에 빠져 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는 성인범죄도 격정범 현장 즉흥범죄 단순범죄 등에 대하여는 역시 Diversion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소년법에 Diversion제도를 실험운영한다고 했는데 검찰과 어떤 절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무리 좋은 Diversion 계획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라는 제도적 걸림돌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개구리소년 사건에 대한 小考

— 國科搜 기능 보강 통한 과학수사기법 개발 시급 —



김 영 규 (前 총경)

전보될 때까지 그 실종사건 수사본부 전임 관직에 있으면서 실종아동들에 대한 초동수사 총 책임을 맡아 안전사고, 단순가출, 범죄에 의한 약취유인, 살해 등 한도 미련도 없이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사건은 오리무중이었고 본인이 퇴직 훨씬 이후인 2002. 9. 26 그해 태풍 ‘매미’로 와룡산 4부 능선 계곡에서 실종 아동 5명의 유골이 모두 백골로 발견되었다.

그 유골 발굴 당시 관할 달서경찰서장과 시경수사과장은 그 현장상황을 보고 소년들의 사인을 모두 저체온 사(死)라고 발표하는 듯 했는데 유가족들이 별 때 같이 일어나 범죄에 의한 타살이라며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고 언론도 그편을 들기 시작하니 결국 그해 10. 25 자칭 경북대학법의학 팀장이라는 광정식 의대교수는 개구리 소년들의 신원확인 및 사망원인 중간발표라는 이름으로 전국 언론에 “2명 이상의 범인에 의해 ㄷ 지형 예리하고 둔탁한 흉기로 우철원에게는 25개소 김종식, 김영규에게는 각 10개소씩 두정부부를 찔러 모두 과다출혈로 살해한 후 암매장 한 것이다.”라며 타살로 확정지워 버렸다.

본인은 그때 너무 황당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본인이 1년간 초동수사 당시 그들 소년들이 집단살해당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동기도 없었고, TV영상을 통한 유골발굴현장 상태를 보아도 과연 어떤 2명 이상의 범인들이 와룡산을 자기들의 놀이터로 삼고 놀러 다니는 그 5총사 아동들을 그 유골발견현장 깊은 산 속까지 어떤 수단 방법으로 데리고 갔겠으며 또 무슨 이유로 그 범인들이 우철원에게는 25개소 김종식, 김영규에게는 각각 10개소씩 모두 45개소의 각기 다른 골절흔에 부합되는 ㄷ 지형 예리한 흉기를 도대체 몇 가지를 사전에 들고 다니다가 마치 개 잡듯이 살해할 수 있던 말인가?

이러한 살인사건은 본인이 순경 형사로 부터 총경 수사과장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 범의학팀의 타살감정 내용인즉

1. 경북대 법의학팀을 급조하여 주도한 광정식, 채종민 교수는 “유골을 방사선 촬영 등 방법으로 정밀감식 했고 의심나는 부분은 미국·일본 등 외국 법의학 전문가와 국내 많은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결론 내렸다.”고 했고

2. 지광준 강남대 범죄학 교수는 “3명이상이 범행했다면 11년이 지나도록 사건이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을 수 없고 범인 혼자서는 5명의 소년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기 어려워 그 범인의 수는 2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3. 계명대 경찰학부 최응렬 교수는 “현장을 살펴본 결과 유골발견 계곡지형은 개구리소년 5명과 2명의 범인이 함께 들어가 기에는 너무 좁아 살해 제1장소로 보기 힘들고 다른 곳에서 살해 후 이곳으로 옮겨 암매장한 제2현장이다.”라고 했고,

4. 16년 경력의 산악전문인 하찬수라는 사람은 “영규군의 옷 매듭은 처음엔 눈을 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려고 묶은 것이고 살해 후에는 사체운반을 위해 쓰여진 것 같다.”고 했고,

5. 또 어느 지질학교수는 “범인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암매장했다.”라고 주장했다.

나의 견해는 저체온 자연사이다.

1. 본인은 거창한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도 그 3인의 두개골에 45개소의 각기 다른 모양의 골절흔은 ㄷ 지형 예리하고 둔탁한 흉기에 찔려 생성된 것이 아니고 저 체온으로 사망 후 11년 6개월만에 유골로 발견될 때까지 여름철 홍수 때마다 변사체 5구 위쪽 1M높이 폭포에서 내리 친 칼날 같은 청석들에 의해 수년간 연차적으로 생성된 사후 골절흔이고 우철원군의 25개소에 가장 많은 골절흔은 그 폭포 바로 밑에 위치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 아래 위치에 있었던 김종식, 김영규는 각각 10개소이고 조효연은 그 폭포아래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었기에 한 개의 골절흔도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 유골발견 현장부근은 당시 50사단 사격장 탄착군 지점이고 넓고 사방이 확 트인 산중 개활지에 범인 2명이 어찌 그 날 썬 5총사들을 한꺼번에 붙잡을 수 있었으며 또 붙잡힌 친구가 마구 흉기에 찔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다른 친구들은 그냥 보고만 있었겠는가?

3. 계명대 최응렬 교수 말대로 유골발견 현장이 사망 제1현장이 아니라면 어느 제1현장에서 5명 아동을 한꺼번에 살해하여 피가 철철 흐르는 5구의 시체를 그곳으로

운반하여 온 산천이 청석돌 지층인 그곳에서 무슨 도구로 타인들이 볼 수 없게 암매장 할 수 있던 말인가?

본인 견해는 그곳 주변에 산재하는 탄환알 납덩이를 줍던 중 아동 5명이 때마침 들어닥친 세찬 계림라성 비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 그 유골발견계곡에 웅기웅기 펴고 앉아 있다가 한기가 들고 저 체온 현상을 일으켜 숨진 제1현장이 분명하다고 본다.

4. 우철원군의 두개골이 상의 추리닝에 폭 찢어 있는 것이나 김영규군의 하퇴부에 추리닝으로 묶여져 매듭지어진 것은 산악 전문인 하찬수씨의 주장과는 달리 본인의 견해는 인체가 저 체온 현상으로 한기가 들면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이 신체 말초부위까지 순환하기에는 장애를 일으켜 혈액이 잘 되지 않아 두정부와 손발이 몹시 시리게 됨으로 이걸 참아내기 힘들어 우철원군은 자신의 상의 추리닝으로 얼굴을 뒤집어 썼고 김영규군은 자신의 추리닝으로 몹시 시린 발목을 자신이 태권도장에서 습득한 도복 띠 매듭방법으로 단단히 졸라매고 있다가 그대로 순진 것이지 범인들에 의해 얼굴을 덮어 씌워졌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다리를 묶은 것이 아니다.

5. 위와 같이 범의학팀이 타살로 주장하는 근거는 사망자 우철원, 김종식, 김영규군 3인의 골절흔을 방사선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정밀 감식한 결과 이들이 사망하기 이전 생성된 골절흔으로 확인했다는 것뿐이고, 달리 타살을 입증할 다른 어떠한 보강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법의학 팀에서 발표한 타살범부로 사용된 ㄷ 지형 예리하고 둔탁한 도구는(변사자 3인의 45개소 골절흔에 부합되는 도구)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내에 유통중인 공공 중에는 하나도 없다는 국립과학연구소의 감정결과이고 유골발견 이후 경찰수사본부에서 수 만장의 ㄷ 지형 범구 수배전단을 배포했음에도 그에 부합되는 도구는 한가지도 발견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한 경북대학 법의학팀의 타살 감정은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학 수사기능의 보강이 시급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과학 수사기법을 갖추고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번 사건에 입체 이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했었더라면 오늘 같이 사망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제 법의학 수준이 상이한 민간 기구, 혹은 대학 의대팀 보다는 국과수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미국보청기

경우회 인천시지부지문위원장
대한노인회 중앙회운영국장
대표 김 두 열

남대문 직영점 개점기념

저렴하게 드립니다.

할인기간: (2006. 8. 30일까지)

15년 전통

미국보청기

디지털 고막형	소비가가격	할인가격
	1,300,000원	→ 700,000원
	1,400,000원	→ 900,000원
	1,600,000원	→ 1,000,000원
	2,500,000원	→ 1,600,000원

귀걸이형	소비가가격	할인가격
	600,000원	→ 200,000원
	800,000원	→ 400,000원
	900,000원	→ 500,000원
	1,200,000원	→ 800,000원

디지털 귀속형	소비가가격	할인가격
	800,000원	→ 500,000원
	1,200,000원	→ 700,000원
	1,500,000원	→ 1,000,000원
	1,800,000원	→ 1,300,000원

포켓형	소비가가격	할인가격
	400,000원	→ 150,000원
	500,000원	→ 200,000원
	700,000원	→ 300,000원

디지털 고막형

디지털 귀속형

귀걸이형

포켓형

부시 미국(전) 대통령
포드 미국(전) 대통령
레이건 미국(전) 대통령

이 사용하는 보청기

▶▶▶ 잡음이 전혀없고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 가격을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 15년 전통의 보청기 전문회사입니다.
▶▶▶ 아주작은 소리도 아주 잘 들립니다.
▶▶▶ A/S를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보증서 드림)
▶▶▶ 10년이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3가 25번지 (남대문시장 버스정류소앞)
전화 : (02)752-2580, 752-2589 핸드폰 : 011-229-0055

인천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22-1 푸른 B/D 2F
전화 : (032)469-0033 핸드폰 : 011-229-0055